



치주적으로 이환된 치아에 있어 Konus Temporary Denture를 이용한 지대치의 예후 평가 및 보철 증례

정상규 | 대구 남구부부치과

중증도 치주질환이 전악에 걸쳐 있는 환자의 치료 계획이 있어 치과의사는 발치와 비발치의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대치의 동요도, bone level, crown-root ratio, 치주 포켓의 정도, TFO의 유무 등으로 이 치아들을 지대치로 사용할지 아니면 발치해야 할지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존의 Clasp retained Partial Denture를 계획하는 경우는 Surveyed Crown이 없는 상태에서 temporary denture로서 각 지대치의 예후를 평가하기도 힘들뿐더러, Wire temporary denture의 근본적인 결함 등으로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 스스로 임시의치의 제작을 꺼릴때가 많습니다. 또한 Surveyed clasp denture를 하더라도 isolated 지대치의 예후를 장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제작된 코너스 템포러리 덴처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지대치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치아를 2ndry splinting하여 지대치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치료중 발치가 행해지더라도 코너스 덴처의 특성상 Clinic에서도 쉽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rigid support의 특징으로 비록 임시 의치지만 너무나 환자가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가지 장점으로 Easy Oral hygiene입니다. 자연치와 일반 보철의 경우는 contact point하부에 “Col”이라는 비각화 상피가 존재하여 이곳이 염증의 초발 부위가 되곤합니다. 그러나 치간부 치은이 각화상피로 변하여 치간부의 골정이 치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제작과정의 정밀성등 다른 몇가지 단점들이 있지만 예후를 볼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임상증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